

모두 발언

2024. 12. 1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금융권 AI 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 등 소 금융업권과
학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AI 활용 현황

’22년 ChatGPT의 등장 이후
AI가 전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였으며,
생성형 AI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년 9월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국가전반 AI 대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 AI 도입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인재 육성, 인프라 확충, 투자 확대 등
「국가 AI전략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에 조사한
국내 산업AI 도입률은 28% 수준*으로,
국내 AI의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3 정보화 통계조사」(과기부, '23.12월)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은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로 인해
AI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AI 협의회 실무분과 회의에서는
오픈소스 AI 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데이터 부족,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부재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Ⅲ.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방안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금융위원회는 금년 8월에
GPT-4 등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용 AI 활용을
허용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1월말 9개 기관에 대하여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초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금융권 AI 협의회」에서는
금융회사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을 포함하여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❶금융권 AI 활용 인프라 구축,
❷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❸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❶ 첫째, 금융권 오픈소스 AI 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모델, 데이터 등을
전문가 집단이 선별하여 제공하고,
이를 내부망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유형과 IT 운영 전략에 따라
상용 AI와 오픈소스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트랙(Two-track) AI 활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❷ 둘째, 금융권 특화 데이터를 지원하겠습니다.
AI의 학습과 성능 및 윤리 평가에 필요한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를 구축하고
이상거래 탐지(FDS), 금융보안 등 공익 목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❸ 셋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등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금융권 AI 활용 거버넌스와 AI 개발·활용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IV. 맺음말

여러분,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은
금융권 AI 협의체와 관계자분들의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함께 모여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수단이 된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플레이어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지원 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이번 과제들이
금융권 현장에서 의미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